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2006)

오류교정 방법론에 대한 소고*

최 종 호

<Abstract>

Un estudio sobre la metodología de la corrección de los errores

Este trabajo, que tiene como objetivo proponer una metodología para corregir los errores, es un estudio que sucede al de Choi/C. Monroy(2005), en el que se analizaron y se clasificaron los 1,471 errores recopilados en las clases de conversación de español de una universidad coreana. En su mayor parte, la corrección de los errores se ha realizado con base en la gramática, es decir, primero se revelan las faltas gramaticales y luego, con una explicación gramatical, se sustituyen por las formas correctas gramaticalmente. Sin embargo, el análisis de dichos 1,471 errores muestra que, a pesar de que éstos infringen las reglas gramaticales observándolos desde el punto de vista del resultado, esto no significa que su corrección deba basarse necesariamente en la gramática. En otras palabras, hay casos que requieren la aplicación de la gramática para su corrección, pero en otros, parece mejor aplicar la lógica o imponer prácticas repetitivas antes de explicar la gramática. Así que, proponemos clasificar tres categorías de los errores según la metodología que se toma para su corrección; los que necesitan simplemente las prácticas repetitivas o la memorización, los que necesitan explicaciones o entendimiento de la gramática y los que necesitan aplicar la lógica. Por otra parte, según el estudio de R. A. Schulz(1996), independientemente de las teorías del aprendizaje de las lenguas extranjeras sobre la necesidad de la corrección de los errores,

* 이 논문은 2006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06-0087).

los estudiantes requieren mucho más que los profesores la corrección de los errores en casi todos los aspectos de su aprendizaje, lo que significa que se debe prestar más atención a la corrección de los errores en las clases y se necesita más estudio sobre este tema por parte de los profesores

[Key Words: Errores / Correcciones de los errores / Errores gramaticales y no gramaticales / Conversación]
[주제어: 오류 / 오류교정 / 문법적 오류와 비문법적 오류 / 회화]

Ⅰ. 들어가면서

최종호/Claudia Monroy(2005)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3개월간의 소규모 스페인어 회화 수업에서 수집한 1,471개의 오류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발생빈도를 조사, 비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출한 오류 발생의 일반적 경향을 개괄하여 제시하였다.[1] 본 연구는 상기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상기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별 오류의 발생 과정을 따져보고 그러한 오류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흔히 오류교정이라고 하면 오류에 대한 문법적 접근을 떠올려, 오류 부분의 문법적 과오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용법을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종호/Claudia Monroy(2005)에서 수집한 오류자료들을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문법오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반복연습과 암기를 통한 숙달이 더 요구되거나 문법 이전의 논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오류가 상당수 나타난다. 또한 오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오류는 발생하는 즉시

1) 이 1,471개의 오류 자료는 2005년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울산대학교 스페인, 중남미학과에서 실시된 소규모 스페인어 회화 강의에서 발생한 오류를 담당 외국인 교수가 직접 발췌, 기록한 것이다. 이 강의는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전체 참가자는 2,3,4학년 49명이었고, 그룹 당 5-10명씩 전체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바로 교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오류교정이 학습을 방해하므로 오히려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더구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에서의 오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R. A. Schulz 1996).

본 연구는 전술한 1,471개의 실증적 오류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류교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이러한 논란들을 재검토해 보며, 특히 오류교정을 시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다음 Ⅱ장에서는 오류교정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입장에 대해 R. A. Schulz(199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오류에 대해 어떤 방식의 교정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실제의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 제안해 본다.

Ⅱ. 오류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외국어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는데, 그 하나는 오류는 학습에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므로 즉각 교정 혹은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대조분석 Contrastive Analysis), 다른 하나는 오류는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학습자의 학습상태나 발달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후이므로 오류의 교정보다는 오류의 분석을 통해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오류 분석 Error Analysis)이다(R. Ellis 1985; H. D. Brown 1987). 전자의 입장은 극단적으로는 오류를 '도덕적 죄악'(N. Brooks 1960; R. A. Schulz 1996, 343에서 재인용, "Like sin, error is to be avoided and ...")과 비교하기까지 하여 교사는 오류가 발생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 교정해주어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오류를 선행학습언어, 즉 모국어의 간섭에서 비롯되는 목표 외국어(이후 목표어)에 대한 일탈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 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오류 교정은 필요가 없거나 해롭기까지 한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오류 교정이 외국어 학습자의 두려움을 가중시켜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며, 오류 발생의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선천적 언어학습능력으

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주로 외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혹은 교수자의 이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오류 및 오류 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R. A. Schulz 1996, 343-344). R. G. Kern(1995, 71)이 지적하듯이 다른 부분의 학습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점이나 기대가 서로 다를 경우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R. A. Schulz(1996)의 조사 연구

R. A. Schulz(1996)는 미국 Arizona 대학에서 10여개의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824명의 학습자와 92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오류 교정의 필요성 혹은 효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모든 언어의 경우에 교수자에 비해 학습자는 오류 교정을 더 많이 요구하였으며, 특히 소위 인기 외국어(commonly taught languages; 스페인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에 비해 비인기 외국어(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아랍어, 중국어, 그리이스어, 히브리어, 일어,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오류 교정을 더 많이 요구하는 등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오류 교정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가장 큰 차이는 말하기에서의 오류교정에서 나타나는데, 오류를 범할 때 교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기, 비인기 외국어에 관계없이 90%의 학습자가 교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교수자는 인기 외국어의 경우 34%, 비인기 외국어의 경우 50%만이 교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이 강의 중 교정 받는 것을 싫어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기 외국어의 경우 86%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수자는 33%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비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89%, 교수자 70%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강의

2) 한국의 상황에서는 스페인어는 비인기 외국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R. A. Schulz(1996)의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비인기 외국어에 대한 조사결과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자 소속 학과의 재학생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비공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말하기 부분에서는 약 96%, 쓰기 부분에서는 100%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오류교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교수자가 교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3%, 교수자 45%, 비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1%, 교수자 25%가 교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자, 교수자 모두 오류교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학습자가 쓰기에서 오류를 범했을 때 교정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97%, 교수자 89%가, 비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96%, 교수자 90%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수자가 쓰기 과제를 교정해주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64%, 교수자 83%, 비인기 외국어의 경우 학습자 69%, 교수자 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오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 그리고 교수자와 교수자 사이에서는 비교적 큰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해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목표어의 인기도에 관계없이 학습자들은 대다수가 충분한 오류교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5% 이상의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교수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외국어인가 혹은 비인기 외국어인가에 따라 항목별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 크게는 37%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3] 오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큰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이다. 즉 비교적 양측의 견해 차이가 적은 '쓰기'에서의 4% 차이를 제외하고는, 말하기에서의 교정의 경우 인기 외국어 56%, 비인기 외국어 40%, 강의 중의 오류교정을 좋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인기 외국어 53%, 비인기

3) 이러한 교사들 사이의 의견차이는 외국어 교육 방법론에서의 차이 및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즉 교사가 어떤 이론 혹은 어떤 조류를 따르는가에 따라 오류교정에 대한 태도나 방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다수 학습자들은 교사의 교육관과 무관하게 실제의 학습현장에서 충분한 오류교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우선할 것인가 혹은 교사의 교육관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R. A. Schulz(1996)의 조사에 따르면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사들이 교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데, 저자는 이에 대해 ESL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습동기가 높다는 사실과 ESL 교사들이 외국어 교육의 현대적 사조에 비교적 잘 따른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흥미로운 것은 ESL 교사 중 학생들이 강의 중에 오류를 교정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교사들 중 단지 11% 만이 학생들의 말하기에서의 오류가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19%, 교수자가 강의 중 오류를 교정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인기 외국어 43%, 비인기 외국어 32% 등의 큰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어 학습이 교수자의 학습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질적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여 이루어지려면 현재보다는 오류의 교정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오류교정의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Ⅲ장에서는 실제의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정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Ⅲ. 오류에 대한 유형별 교정 방안

대다수의 오류교정 방안에 대한 연구는 오류에 대한 문법적 과오를 지적하고 그 올바른 형태를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손성태 2001, 임효상/신자영 2003, 박영예 1999, Kim, Shin-Hye 2001, 등). 하지만 최종호/Claudia Monroy(2005)에서 수집한 오류자료들을 분석, 분류해 본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문법적 오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반복연습과 암기를 통한 숙달이 더 요구되거나 문법 이전의 논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오류가 상당수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오류교정 접근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함께 제시한다.

1. 암기나 반복 연습을 통한 숙달이 필요한 경우

오류분석 이론에 따르면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체계와 규칙을 구축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 학습자의 현 상태에서의 목표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오류는, 특히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회화 부분에서는,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암기나 연습 부족에서 오는 산발적인 단순 과오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문법체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보다는 정확한 형태 및 표현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4)]

1) 형태적 오류

문법 설명이나 이해보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S. Pit Corder(1967)가 분류한 소위 '실수'(mistake), 특히 형태적 실수의 경우이다.[5] 즉 아래 (1)과 같은 동사의 어미변화, 명사와 그 한정어 사이의 일치 관계, 철자법 등의 형태 측면에서 나타나는 실수는 '오류'(error)와는 달리 학습자 스스로가 실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바, 반복적인 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1) Uds. ya sabieron (que ...)	*'Uds. ya supieron (que ...)'*
(Es un) tema muy pesada	*'(Es un) tema muy pesado'*
para buen notas en el examen	*'para tener buenas notas en el examen'*
con mi amigo y con tú	*'con mi amigo y contigo'*
Voy a el famoso cine.	*'Voy al cine famoso'*
en primero año	*'en primer año'*
Tengo veintiuno años.	*'Tengo veintiún años'*
Quiero experisación.	*'Quiero tener experiencia'*

2) 표현 방식에서의 오류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에서의 고유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간섭 오류 역시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래

4)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저학년에 대해 많이 느껴지는데, 최종호/Claudia Monroy(2005, 456-459)에서 보여준 학년별 오류발생의 양상 및 통계에 따르면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의미전달 및 교정이 불가할 정도로 중간언어로서의 체계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오류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스페인어의 기본 형태나 문형을 반복연습을 통해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S. Pit Corder(1967, 24)는 언어학습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오류'(error)와 '실수'(mistake)로 구분하여, 언어능력 혹은 언어지식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잘못은 오류로, 언어수행 측면에서 나타나는 잘못은 실수로 각각 정의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류는 체계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수는 그러한 체계성, 반복성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수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발화자가 즉시 잘못을 수긍, 이해하고 고칠 수 있는 반면 오류는 목표어의 체계나 규칙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잘못을 지적 혹은 교정 받아도 잘못의 내용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여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2)의 'somos segundo año', 'El dinero no es mucho' 등은 '우리는 2학년이다, 돈이 많지 않다' 등의 한국어 표현방식을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 표현방법을 숙달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처 방법을 찾기 힘들다.

(2) (Vamos a México cuando) somos segundo año
'estamos en el segundo año'
El dinero no es mucho. *'No tenemos mucho dinero'*
Mi cabeza está complicado. *'Estoy confundido'*
(Entonces) era 19 años *'(Entonces) tenía 19 años'*
Todos no me quieren. *'Nadie me quiere'*
Cuba es vuelo directo. *'Hay un vuelo directo a Cuba'*
Quiero cambiar la forma de mi cabeza.
'Quiero cambiar el estilo de mi cabello'

위의 경우가 전체적인 문장 구성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아래 (3)의 경우는 수식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부사를 이용해 동사(구)를 수식하는 방법('시간이 많이 지났다', '돈을 적게 썼다', 등)과 형용사를 이용해 동사의 직접보어를 수식하는 방법('많은 시간이 지났다', '적은 돈을 썼다', 등)이 모두 가능하고 의미 차이도 없지만 스페인어에서는 후자 식의 표현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 역시 문법이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하며,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 올바른 표현방법을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Ha pasado tiempo mucho. *'Ha pasado mucho tiempo'*
Aquí gastó dinero poco. *´Aquí gastó poco dinero ´*
Quiero viajar los países extranjeros mucho.
'Quiero viajar a muchos países extranjeros'
No tengo dinero mucho. *'No tengo mucho dinero'*
Si tengo tiempo suficientemente, ... *'Si tengo suficiente tiempo,'*
Hace calor mucho. *'Hace mucho calor'*

아래 (4)의 경우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부사가 형용사를 직접 수식하게 해야 하며 부사가 형용사를 포함하는 동사구를 수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Es importante mucho. *'Es muy importante'*
..., cuando estás triste mucho *'cuando estás muy triste'*
Estamos nerviosos mucho. *'Estamos muy nerviosos'*

3) 어휘 사용에서의 오류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어휘 사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5)는 cumpleaños 대신 nacimiento를, bonita 대신 guapa 등을 잘못 사용한 경우인데, 이러한 오류 역시 문법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단어를 암기할 때 개별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를 암기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상황 속에서 그 의미와 용도를 함께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Hoy) Es mi nacimiento. *'(Hoy) Es mi cumpleaños'*
La casa es muy guapa. *'La casa es muy bonita'*
Estoy enferma aquí *'Me duele aquí'*
Tengo viaje mucho. *'Hago muchos viajes', 'Viajo mucho'*
No hay tanto calor. *'No hace tanto calor'*
Después semana, yo iré. *'la próxima semana, yo iré'*
Antes novia está en México. *'Mi exnovia está en México'*

다음 (6)의 경우는 한국어로 생각한 단어 혹은 의미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생각을 가지고 있다', "... 하는 게 어때?' 등에서의 '생각'과 '어때'를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길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두 예는 '-와 사랑에 빠지다, -와 키스하다'에서의 '-와'를 'con'으로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6) Yo tengo un pensamiento. *'Yo tengo una idea'*
¿Cómo te parece si (salimos ahora)? *'¿Qué te parece si ...'*
Mirando libros, (la espero.) *'Leyendo libros, (la espero)'*
Estoy enamorando con él. *'Estoy enamorada de él'*
Ella no quiere besar con tú. *'Ella no quiere besarte'*

다음 (7)과 같은 부적절한 전치사나 관사의 사용 역시 문법이나 논리보다는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7) después en el examen *'después del examen'*
Llego en universidad antes 9:00.
'Llego a la universidad antes de las 9:00'
Está ejojada de mí. *'Está enojada conmigo'*
Son a las cinco. *'Son las cinco'*
Tengo que ir Seúl. *'Tengo que ir a Seúl'*
Yo creo tus palabras. *'Yo creo en tus palabras'*

Yo veo el película. *'Yo veo la película'*
La examen empieza. *'El examen empieza'*
un vez en México. *'una vez en México'*

2. 문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우

최종호/Claudia Monroy(2005, 458)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오류발생의 양상 및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오류 중 문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류(목표어 내적 오류)는 2,3,4학년 각각 62.9%, 71%, 74.6%로 전 학년에 걸쳐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록 본 연구가 오류교정에 대해 세 가지의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류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문법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6] 문법은 또한 오류의 판정 및 인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오류분석론에서 지나친 오류교정을 염려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문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

6) 이 사실이 오류 교정이나 오류의 감소를 위해 문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호 & Claudia Monroy(2005, 458)에서 언급되었듯이 전체 오류 중 의미전달이 어려울 정도의 오류는 10%에도 미치지 않는 바, 대다수 오류는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요컨대 문법과 관련된 오류의 문제는 학습의 목표를 정확성에 두느냐 아니면 유창성에 두느냐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외국어교육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법 오류가 많다는 것을 문법 강화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1) 어순에서의 오류

스페인어에서는 명사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 복합명사구를 형성할 때 그 핵인 명사는 전치사구의 앞에 위치해야 한다. 아래 (8)의 오류는 그 위치가 뒤바뀐 경우인데, 이들은 '은메달', '스페인어 선생님' 등의 한국어 어순이나 'silver medal', 'Spanish professor' 등의 영어 어순의 간섭에 의해 야기된 오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8) Ganó plata de medalla. *'Ganó una medalla de plata'*
(Ella es) mi español profesora *'(Ella es) mi profesora de español'*
Vestido color es negro. *'El color del vestido es negro'*
La serpiente de piel muy liso. *'La piel de la serpiente es muy lisa'*
(Es) mi madre amiga *'(Es una) amiga de mi madre'*

다음 (9)는 동사와 부사 사이의 어순에서 나타나는 오류인데, 이 역시 '많이 그리워하다', '담배를 많이 피우다' 등의 한국어 어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어에서는 동사 수식 부사는 동사 뒤에 나타나야 한다.

(9) Mucho te extrañas. *'Te extraño mucho'*
Ellos mucho fuman. *'Ellos fuman mucho'*
Poco estudia. *'Estudia poco'*
Más come (que yo). *'Come más (que yo)'*
(Se está) mucho riendo. *'(Se está) riendo mucho'*

동사와 그 보어 사이의 어순에서도 다음 (10)과 같은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뭘 좀 먹었니?', '병원에 갔다' 등의 한국어 어순의 간섭으로 보인다.

(10) ¿Algo comer? *'¿Has comido algo?'*
La lengua no entiendo. *'No entiendo la lengua'*
23 años tiene yo. *'Yo tengo 23 años'*
Ángel hospital fue. *'Ángel fue al hospital'*
Casi todos lugares viajaré. *'Viajaré por/a casi todos los lugares'*

다음 (11)은 의문형용사의 보어가 의문사로부터 분리된 경우인데, 위의 경우

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들 역시 '방을 몇 개 가졌니?', '날씨가 어떠니?' 등의 한국어 표현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아래 오류에서 habitaciones와 tiempo는 각각 문장의 목적어와 주어처럼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몇 개의 방을 가졌니?', '어떤 날씨이니?' 보다 위 표현들이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Cuántas tiene habitaciones? *'¿Cuántas habitaciones tiene?'*
¿Qué hace tiempo? *'¿Qué tiempo hace?'*
¿En qué estamos estación? *'¿En qué estación estamos?'*
¿Qué tenía trabajo eventual? *'¿Qué trabajo eventual tenía?'*
¿Cuánto está el biblioteca pública en esta ciudad?
'¿Cuántas bibliotecas públicas hay en esta ciudad?'

이상과 같은 오류들은 스페인어 어순에서의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서, 개개의 사실을 암기, 숙달하거나 논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스페인어가 '핵 선행(head-initial) 언어'라는 등의 구체적인 문법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핵과 보어, 핵과 수식어 등과 같은 문법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이해도 전제되어야 한다.

2) 문법 요소의 생략에 따른 오류

다음 (12)의 경우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거나 더 자연스러운 바, 한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그녀들을 찾았으나 못 찾아냈다, 돈이 남지 않았다, 등). 이러한 오류 역시 암기나 반복연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동사의 논항 구조 및 그와 관련된 스페인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오류를 인식시키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

(12) (¿Dónde están las chicas?) Las busco, pero no encuentro.
'Las busco, pero no las encuentro'
No queda dinero. *'No nos queda dinero'*
No importa casarme. *'No me importa casarme'*

Esta novela es muy interesante, por eso recomendo a tú.
'Esta novela es muy interesante, por eso te la recomiendo'
No compró. *'No lo compró'*
Todavía no tengo. *'Todavía no la tengo'*

동사가 부적절하게 생략되는 다음 (13)과 같은 오류도 있는데, 주로 의미가 약한 ser, estar 등의 기본 동사가 자주 생략된다. 이러한 경우 역시 암기나 반복연습보다는 불완전 자동사(계사)와 관련된 스페인어의 기본 문형에 대한 문법적 설명 및 이해를 통해 오류를 인식시키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

(13) Todos los días importante. *'Todos los días son importantes'*
Mi casa cerca del mar. *'Mi casa está cerca del mar'*
Yo muy buena estudiante *'Yo era muy buena estudiante'*
El aire muy mal porque muchas fábricas.
'El aire es muy malo porque hay muchas fábricas'
Hoy muy calor. *'Hoy hace mucho calor'*
Yo mucho hambre. *'Yo tengo mucha hambre'*

3) 기본 동사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

다음 (14)는 ser, estar, hay, gustar 등의 기본 동사 및 재귀동사의 용법이나 어휘적 특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오류이다. 즉 (14a)에서는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 estar 대신 ser가 잘못 사용되었고, (14b)에서는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ser 대신 estar가 잘못 사용되었으며, (14c)에서는 hay는 주어를 가질 수 없고 또 그 직접보어는 비특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어휘적 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14d, e)에서는 의미상 동사가 재귀동사, 즉 재귀대명사를 동반해야 하며 (14f, g)에서는 gustar동사의 역구조적 특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요컨대 이러한 오류의 인식과 교정을 위해서는 ser/ estar의 용법 구분, hay, gustar 동사의 어휘적 특성 그리고 재귀동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문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14) a. (Mi casa) Es cerca del central. *'Está cerca del centro'*
b. Sábado pasado estuve mi cumpleaños.

'El sábado pasado fue mi cumpleaños'

c. Esta palabra no hay en el español. *'Esta palabra no existe en español'*
d. Cuando levanto, ... *'Cuando me levanté'*
e. Quedamos en un hotel. *'Nos quedamos en un hotel'*
f. Me gusta a los extranjeros. *'Me gustan los extranjeros'*
g. Yo no te gusta. *'Tú no me gustas'*

동사가 중복되어 있는 다음 (15)와 같은 오류도 나타나는데, 이는 스페인어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 지식에 해당한다.

(15) Soy estoy en mi casa. *'Estoy en mi casa'*
¿Estás vives aquí? *'¿Vives aquí?'*
Es importa. *'Es importante'*
Es necesita hablar (en voz alta). *'Es necesario hablar (en voz alta)'*

4) 시제, 법, 접속사, 관사, 부정어(negativos) 등 기능범주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다음 (16)은 동사의 시제와 법, 동사의 비인칭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인 데, 이 역시 문법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16a-c)에서는 동사의 시제와 문장 내 다른 시간 표현이 서로 상응하지 않았고, (16d, e)에서는 각각 그 주동사와 선행사의 성격상 종속절에 접속법이 나타나야 하며, (16f)의 경우 현재나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문에는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직설법 현재나 접속법 과거가 사용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접속법 현재가 잘못 사용되어져 있다. 또한 (16g)에서는 preferir 동사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16h)에서는 querer 동사의 특성과 주절,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각각 preferir와 querer의 보어로 동사원형이 나타나야 하고, (16i)에서는 seguir 동사의 어휘적 특성상 현재분사형이 그 보어로 나타나야 한다. (16j)에서는 현재진행형의 구성 요소로 현재분사 대신 과거분사가 잘못 들어가 있고, (16k)에서는 cuando가 접속사인 바, 동사가 인칭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16) a. Anoche no puedo dormir. *'Anoche no pude dormir'*

b. Tenía que ir la próxima semana. *'Tengo que ir la próxima semana'*
c. No entiendo la clase pasada. *'No entendí la clase pasada'*
d. Espera que bailas con nosotros. *'Espera que bailes con nosotros'*
e. No hay persona que puede hablar español.
'No hay nadie que pueda hablar español'
f. Si yo tenga un coche, ... *'Si yo tengo un coche'*
g. Prefiero estoy con mis amigos. *'Prefiero estar con mis amigos'*
h. Quiero que voy a trabajar. *'Quiero ir a trabajar'*
i. No puede seguir andar. *'No puede seguir andando'*
j. Está vivido en Ulsan. *'Está viviendo en Ulsan'*
k. Cuando lavarme las manos, ... *'Cuando me lavo las manos,'*

다음 (17)은 접속사 및 관계사 사용에서의 오류인데, 주로 접속사의 생략, 전치사와의 혼동, lo que의 사용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17a, b)의 경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타동사의 보어가 될 경우 의문문 그대로 보어 위치에 나타나야 하나 (17a)에서는 접속사 que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고 (17b)에서는 의문사가 빠져 있다. 또한 (17c)에서는 종속절을 이끌어야 할 (시간) 접속사가 빠져 있고, (17d)에서는 종속절을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가 이끌고 있다. (17e-i)는 관계사 lo que와 관련된 오류인데, lo que는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인 바, 생략된 선행사(ALGO로 표기)가 관계절 내에서 적절한 문법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7e, f)의 경우 'me gusta ALGO, digo ALGO'가 가능하므로 lo que가 사용되어야 하며, (17g, h)에서는 'ALGO llegamos a tiempo, ALGO puedo usar otros idiomas'가 불가능하므로 lo que가 사용될 수 없다. (17i)에서는 선행사 un trabajo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lo que가 사용될 수 없다.

(17) a. ¿Sabes que cuál es nombre de esa persona?
'¿Sabes cuál es el nombre de esa persona?'
b. No sé se llama. *'No sé cómo se llama'*
c. Terminará los exámenes, voy a preparar mis maletas.
'Cuando termine los exámenes, voy a preparar mis maletas'
d. durante estuve en Seúl, *'cuando estuve en Seúl'*
e. Compraré que me gusta *'Compraré lo que me guste'*
f. No escucha mi hablo. *'No escucha lo que digo'*

g. Es importante lo que llegamos a tiempo.
'Es importante que lleguemos a tiempo'
h. Lo que puedo usar otros idiomas es mi capaz.
'Poder usar otros idiomas es mi capacidad'
i. Buscan un trabajo lo que quieran. *'Buscan un trabajo que quieran'*

다음 (18)은 부정어(negativos) 사용에서의 오류인데, 주로 no의 위치나 tampoco 등의 부정어(indefinidos) 사용에서 오류가 나타난다. 스페인어에서 no는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하나 (18a, b)에서는 동사 뒤에 나타나 있고, 또 no는 목적격 대명사가 동사 앞에 있을 경우 그 앞에 나타나야 하나 (18c)는 이를 어기고 있다. 또한 tampoco, nadie 등의 부정어는 동사 앞에 나타날 경우 어디에도 no가 나타나서는 안 되나 (18d, e)에서는 no가 동사 앞에 반복되어 있다.

(18) a. Mi padre trabaja no. *'Mi padre no trabaja'*
b. Color es no importante. *'El color no es importante'*
c. La no quiero. *'No la quiero'*
d. Yo no tampoco voy a excursión. *'Yo tampoco voy a la excursión'*
e. Nadie no está (aquí). *'No está (aquí) nadie'*

다음 (19)는 관사 사용에서의 오류인데, 단순한 관사의 성, 수 일치, 관용적 관사 사용의 문제 등은 암기나 반복 연습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오류는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즉 'ser 명사'가 직업을 나타낼 경우 그 명사에는 관사가 탈락되어야 하나 (19a)에는 관사가 나타나 있고, 그 직업 명사에 수식어가 붙을 경우 부정관사가 나타나야 하나 (19b)에는 부정관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나라 이름의 형용사 복수형이 그 국민들을 지칭할 경우 정관사가 동반되어야 하나 (19c)는 이를 어기고 있고, 형용사의 최상급 표현에도 정관사가 동반되어야 하나(19d)에는 정관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19e)의 경우 하루 밖에 없는 특정한 날을 지칭하므로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19) a. Yo quiero (ser) la profesora. *'Yo quiero ser profesora'*
b. (Ella) es estudiante muy simpática.
'(Ella) es una estudiante muy simpática'

c. Mexicanos se comen a las dos. *'Los mexicanos comen a las dos'*
d. ¿Cuál es más bien entre las empresas?
'¿Cuál es la mejor entre las empresas?'
e. Ayer es un Día de Padres. *'Ayer fue el Día de los Padres'*

5) 어휘 선택에서의 오류

어휘 선택과 관련된 오류 중 다음 (20)의 예들은 어휘적 특성의 이해를 위한 문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hablar와 decir는 각각 자동사, 타동사로 그 어휘적 성격이 다르므로 (20a, b)에서처럼 직접보어(말하는 내용)가 있을 경우 hablar가 아니라 decir가 사용되어야 하며, saber와 conocer는 비슷한 의미의 타동사이지만 (20c)에서처럼 사람이 직접보어인 경우 conocer가 사용되어야 하고, 또 conocer는 (20d)에서처럼 인칭대명사가 직접보어인 경우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격 대명사를 취해야 한다. (20e, f)에서는 형용사의 비교 형태가 잘못 사용되었는데, (20e)에는 más vieja 대신 불규칙형 mayor가 사용되어야 하며 (20f)에서는 peor 자체가 비교 형태인데 más가 중복되어 나타나 있다.

(20) a. Escucha bien te hablo. *'Escucha bien lo que te digo'*
b. Gabriel habla que lo siento mucho. *'Gabriel dice que lo siente mucho'*
c. Yo sé otra una chica. *'Yo conozco a otra chica'*
d. Yo conozco bien de sobre ella. *'Yo sé bien de/ sobre ella'*
'Yo la conozco bien'
e. Es más vieja (del grupo). *'Es la mayor (del grupo)'*
f. Lo más peor es te aprovechas de tu amigo.
'Lo peor es que te aprovechas de tu amigo'

6) 수식어 사용에서의 오류

다음 (21)은 수식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인데, 주로 mucho와 muy, bueno와 bien, tanto와 tan 등의 혼용에 기인한 오류가 많다. mucho는 수식어로 사용될 경우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로 동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muy는 부사로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 (21a)의 경우 형용사를 mucho가 잘못 수식하고 있고, (21b)의 경우 명사를 muy가 잘못 수식하고 있다. (21c)의 경우는 동사를 형용사인 bueno가 잘못 수식하고 있고, (21d)의

경우는 형용사 술어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부사 bien이 잘못 나타나 있다. 또한 tan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으나 (21e)에서는 tan이 명사를 잘못 수식하고 있고, (21f)에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mucho 및 그 절대 최상급 형태는 사용될 수 없다.

(21) a. (Estoy) mucho cansado. *'(Estoy) muy cansado'*
b. con muy sal *'con mucha sal'*
c. Mi novia canta muy bueno. *'Mi novia canta muy bien'*
d. La pronunciación es muy bien. *'La pronunciación es muy buena'*
e. No hace tan frío. *'No hace tanto frío'*
f. Es muchísimo importante. *'Es importantísimo, Es muy importante'*

7) 대명사 사용에서의 오류

다음 (22)는 대명사 사용에서의 오류인데, 주로 목적격 대명사, 재귀대명사, 전치격 대명사 등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스페인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그 목적격 형태(me, la)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거나 강조할 경우 중복형(a mí, a ella) 형태를 선택적으로 덧붙일 수 있다. 하지만 (22a, b)의 경우 목적격 대명사 없이 선택적 요소인 중복형만 나타나 있다. (22c)에서는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가 부적절하며, (22d)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전치사의 보어이므로 전치격 인칭대명사가 나타나야 하고, (22e)에서는 que가 전치사가 아니고 또 인칭대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는 위치이므로 주격 인칭대명사가 나타나야 한다. (22f, g)에서는 재귀대명사가 주어와 인칭, 수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22h)에서는 주어 위치에 소유격 형태가 잘못 나타나 있다.

(22) a. No espera a mí. *'No me espera (a mí)'*
b. Yo conozco a ella. *'Yo la conozco (a ella)'*
c. Quiero te ver. *'Quiero verte, Te quiero ver'*
d. Es para tú. *'Es para ti'*
e. igual que mí *'igual que yo'*
f. No quiero ponerse (el sombrero). *'No quiero ponerme (el sombrero)'*
g. Se sentí triste. *'Me sentí triste'*
h. porque mi no tengo tiempo. *'porque yo no tengo tiempo'*

8) 전치사 사용에서의 오류

다음 (23)은 전치사 사용에서의 오류인데, 주로 전치사가 부적절하게 생략, 과용(過用)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 역시 단순 암기나 반복 연습 등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 문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페인어에서는 사람이 타동사의 직접보어일 때 전치사 a를 동반하는데, (23a)에서는 이 전치사가 빠져 있고 (23b)에서는 직접보어가 사람이 아닌데도 이 전치사가 나타나 있다. (23c, d)에서는 부사로 기능하는 문장 요소 앞에 전치사가 불필요하게 나타나 있고, (23e)에서는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de 전치사구를 통한 수식은 불필요하다.

(23) a. Fue a buscar su amigo. *'Fue a buscar a su amigo'*
b. No he visto a muchos países. *'No he visto muchos países'*
c. En mañana no tengo clase. *'Mañana no tengo clase'*
d. Vine en aquí. *'Vine aquí'*
e. con su amigo de mexicano *'con su amigo mexicano'*

3. 문법보다는 논리를 통해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는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오류들은 비록 결과적으로는 문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논리 적용에서의 오류가 감춰져 있으며, 따라서 오류 교정을 위해서도 문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논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 전치사 사용과 관련된 논리적 오류

아래 (24)의 예들은 문장의 논리구조상 장소, 시간의 '-에(서)'(24a-d), 도구의 '-으로'(24e), 동반의 '-와 함께'(24f), 목적의 '-하기 위해'(24g) 등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포함하는 부사적 보어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러한 전치사가 빠져 있다.

(24) a. María y Elsa está la clase. *'María y Elsa están en la clase'*
b. Mi hermana trabaja academia. *'Mi hermana trabaja en una academia'*

c. Estamos otoño. *'Estamos en otoño'*
d. Terminemos agosto. *'Terminamos en agosto'*
e. Escribo la mano derecha. *'Escribo con la mano derecha'*
f. Jugo otros amigos. *'Juego con otros amigos'*
g. Me levanto estudiar. *'Me levanto para estudiar'*

2) 인칭의 개념과 관련된 논리적 오류

아래 (25)의 예들은 인칭 개념의 이해 혹은 사용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이다. 즉 (25a, b)에서는 이미 '나'를 포함하는 '우리'가 주어임에도 다시 '내'가 동반자 보어로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25c, d)에서는 주어가 yo, tú임에도 불구하고 이 yo, tú와 그 동반자 보어 mi amigo, tu novia가 개념적으로 미리 더해져 동사가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로 각각 나타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25e, f)에서는 mis amigos에 yo가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사가 1인칭 복수로 잘못 나타나 있으며, (25g, h)에서는 주어에 yo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사가 1인칭 복수가 되어야 하나 3인칭 복수로 잘못 나타나 있다.

(25) a. Vamos a ir a México conmigo. *'Vamos a ir a México juntos'*
b. ¿Qué te parece si vamos conmigo? *'¿Qué te parece si vamos juntos?'*
c. Jugamos con mi amigo. *'Juego con mi amigo'*
d. ¿Vais (al) cine con tu novia? *'¿Vas al cine con tu novia?'*
e. Mis amigos fuimos al mar. *'Mis amigos fueron al mar'*
f. Mis amigos reunimos para jugar. *'Mis amigos se reunen para jugar'*
g. Ella y yo se conocen desde eran niños.
'Ella y yo nos conocemos desde la niñez'
h. Nadia y yo ven ... *'Nadia y yo vemos ...'*

3) 기타 논리적 오류

아래 (26a)는 '- 중의 하나'이므로 논리적으로 de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하며, (26b)에서는 동일한 문법기능을 갖는 Cuánto와 largo가 중복되어 있는 바, 둘 중 하나는 탈락되어야 한다.

(26) a. uno de más grande amigo *'uno de mis mejores amigos'*
b. ¿Cuánto has besado tan largo? *'¿Cuánto has besado?'' '¿Has besado tan largamente?'*

Ⅳ.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소규모 회화강의에서 수집한 1,471개의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오류교정의 몇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의 문법에 의존해 온 기존의 많은 오류교정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문법 뿐 아니라 문법 이전의 반복 연습이나 논리적 접근을 통해 오류를 찾아내고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암기나 반복 연습을 통한 숙달이 필요한 경우, 문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우, 논리를 통해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오류교정 방안을 그 각각의 오류 용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R. A. Schulz(1996)의 조사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오류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외국어학습이론상의 다양한 견해와는 별도로 실제의 외국어 학습자들은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오류교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어학습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오류의 교정에 주어져야 하고, 오류교정의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오류의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류교정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구분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하나의 오류 자료에 대해서도 두세 가지의 교정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표현된 오류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 학습자가 잘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리 회피하려는 잠재적 오류에 대해서는 그 수집 및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교정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오류교정 방안들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가 안게 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진우(2002), 『제 2어 습득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사.

김향련(1987), 「오류분석과 외국어 학습지도」, 상명대학교 논문집, Vol.19, pp.129-152.

박영예(1999), 「대학생의 영어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 언어연구, Vol.15, No.2, pp.73-89.

손성태(2001), 「스페인어 작문 분석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8, No.1, pp.375-394.

임효상, 신자영(2003), 「한서 학습자 오류데이터에 대한 실증적 분석연구」, 서어서문연구, Vol.28, pp.221-239.

최종호, Claudia Monroy(2005),「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12, No.4, pp.437-462.

한학성(2004), 『오토 예스퍼슨의 외국어교육 개혁론』, 한국문화사.

황종배(2004), 『제 2언어 습득론 개관』, 경진문화사

Brown, Douglas H.(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n: Longman, 이홍수 외 5인 공역(2005)『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한신문화사.

Corder, Pit S.(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5, pp.161-170.

Ellis, Rod(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윤경 역(1998) 『외국어 습득론』, 한국문화사.

Kern, Richard G.(1995), "Stud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Vol.28, No.1, pp.71-92.

Kim, Shin-Hye(2001), "An error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writing: Is that really Konglish?", 현대문법연구, Vol.25, pp.157-174.

Schulz, Renate A.(1996), "Focus on Form in the Foreing Language Classroom: Students' and Teachers' Views on Error Correction and the Role of Grammar", *Foreign Language Annals*, Vol.29, No.3, pp.343-364.

논문투고일자 : 200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최종호
울산대학교 스페인, 중남미학과
E-mail : jhchoe@ulsan.ac.kr